

괴물이 돼버린 神..김기라 개인전

연암뉴스 | 기사입력 2012-03-05 17:48



두산갤러리서 '공동선- 모든 산에 오르라!'展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오랜 세월 인간이 숭상해온 신상(神像)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양한 종교에서 신성시되는 신상의 이미지를 역사나 종교 서적에서 뜯어 해체하고 다시 이어 붙이니 신기하게도 괴물의 모습이 나왔다.

오는 29일까지 연지동 두산갤러리에서 개인전 '공동선- 모든 산에 오르라!'를 여는 현대미술가 김기라(38) 씨는 이를 '스펙터(specter.망령)'라고 부른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종교가 공존할 때 뜻밖에도 피비

린내나는 폭력이 끊이지 않은 것처럼 공동선이라는 가치를 상징하는 신상들이 모이니 괴물이 나온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공동선'이라는 가치가 실제 존재하기는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작가는 인간이 지향해온 가치들이 결국 욕망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간을 몰아맨다고 지적한다.

"신이나 이념이 상징하는 가치들과 그것들을 형상화한 신상의 이미지를 찢어서 한데 붙이니 괴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공동선도 결국은 이런 괴물의 모습이 아닐까요."

작가는 800여 권의 역사·인류사·신화 서적을 뒤져서 찾아낸 이미지들을 60여 점의 '스펙터' 연작에 담았다.

드로잉 36점과 수년간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0여 개국을 다니며 수집한 골동품 300여 점도 함께 선보인다.

다이아몬드, 금, 진주 등 가짜 보석이 깨지기 쉬운 유리판 위에 놓여 '결혼예물 3종 세트'로도 불리는 설치작품 '우리들의 잃어버린 마음가짐, 2012'도 눈길을 끈다.

깨지기 쉬운 유리판 위에 놓인 가짜 보석들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결혼의 근본적인 가치들이 보석이라는 물질적 가치로 대체되면서 영원해야 할 결혼 서약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꼬집었다. ☎02- 708- 5015.

mong0716@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새누리, 2차 공천자 명단 발표

☞ 與 정몽준 공천, 홍준표·나경원 결정 유보(종합3보)

☞ '땅 매도 반대' 母·외조모 잇따라 살해(종합)

☞ 與현역30명 공천탈락 파장.. '무소속 불사'(종합2보)

☞ 이동관, **MBC** 노조 명예훼손 고발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5539911>

인쇄하기

취소

